

2017

봄 제63권 1호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이집트 Egypt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성경을 보내는 일, 선교사를 보내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으로
한글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한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현재 150여 개 성서공회들로 구성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와 함께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서공회 사역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성서공회들을 위하여
성경 제작, 출판,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문맹퇴치를 위한 문자교실 프로그램과 에이즈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귀중한 성경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www.bskorea.or.kr

Contents

02 포토에세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4 커버스토리

박해 받는 이집트 교회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08 후원 교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마음을 담아
말라가시어 성경을 보냅니다!

10 성경 보내기 기증 현황

여러분의 후원으로 69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12 현장 이야기

· 아프리카의 관문, 에티오피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다!

· 내 생애 첫 성경!

18 말씀을 만나다

바위너구리

20 세계성서공회 소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22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24 대한성서공회 소식

최초의 '한글 성서' 외 2권 문화재로 등록되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편집문의 : 02-2103-8855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8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7년 3월 31일
- 인쇄인 : 김현수
- 인쇄처 : 삼립인쇄(주)
- 편집 : 강수현

* <http://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회원국으로서
법제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유통실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어
산책하는 것조차 힘겨운
폴 아타나스(50세)와 리아(46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나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두 남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탄자니아성서공회가 성경책을 선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된 폴과 리아!

장애로 두 다리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 높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탄자니아성서공회가 전달한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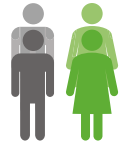
이집트성서공회에서 제공한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이집트 학생들

위치

아프리카
북동쪽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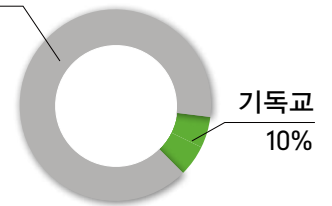
약 9,400 만 명



언어

아랍어
(공식언어)

종교

이슬람교
90%

박해 받는 이집트 교회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지난해 12월, 이집트 카이로의 한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25명이 목숨을 잃고 49명이 부상을 당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폭발 당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던 성도들로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었다. 2011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난 폭탄 피격으로 기독교인 21명이 사망한 일이 있는 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겨냥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여 이집트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집트는 2011년 일어난 민주화 혁명 이후로 나라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교회도 이러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이집트성서공회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 성서공회 서점 두 곳이 완전히 불타고 성경이 모두 파손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점점 더 극단화 되어가는 이슬람 과격단체의 시위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난 또한 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최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취업난과 부정부패 그리고 국제사회의 경쟁 구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에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인구의 절반은 하루 수입이 우리나라 돈 2,000원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에 속하며,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닥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이집트 화폐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수입품목들은 이전의 두 배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형편이다.

성경 한 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선교활동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성서공회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반포하고 있다. 이집트의 교회와 기독교 단체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자 하는 개개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있다. 특히 이집트 선교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보급판 신약전서와 단편성서, 소책자를 꾸준히 제작하고 편찬하여 교회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고 있다. 매년 성탄절이나 부활절 등 큰 행사가 있을 때나 청소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제에 따라 성경구절을 모아 단편 또는 소책

자로 편집한다. 2017년에는 12만 부의 신약 전서와 10만 부의 성경 소책자를 보급하고자 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이집트 교회와 어린이들은 성경을 살 형편이 안 된다. 성서 공회는 특히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교회에 성경을 제공하고 있다. 교회들은 성서공회를 통해 지원받은 성경으로 청소년 성경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복음전파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약 45만 부의 저렴한 성경 및 자료들을 교회에 공급함으로써 교회들이 겪는 경제적

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세대에 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양한 사역

이집트성서공회는 미국성서공회에서 만든 킹고(Kingo)라는 사자모양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 전도 축제 등을 통해 어린이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성경 이야기가 담긴 소책자를 나눠 주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화재로 불에 탄 이집트성서교회 서점의 성경책



이집트성서교회 킹고축제

또한 성서공회는 매년 2월 아랍문화관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서적 박람회인 카이로 국제 서적 박람회에 참가하여 성경을 전시한다. 이와 같은 합법적인 기회를 통해 주제별 소책자나 단편성서 또는 사랑, 용서, 위로 등의 성경적인 가치가 담긴 좋은 글귀 등을 캘리그래피로 디자인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난 12월 일어난 테러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두려움과 슬픔에 빠졌지만, 오히려

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집트 교회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로마서 12:21 말씀을 붙들고 이를 실천하며 "테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2015년 시리아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에 의해 고문을 받고 처형당한 이집트 기독교인 21명의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에도 이집트 전역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이집트성서공회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해변의 두 갈래 길(Two Rows By the Sea)』이란 소책자를 편찬하여 약 165만 부를 배포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청년들의 신앙은 성서공회에서 배포한 소책자를 통하여 재조명되었고, 절망에 빠진 이집트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으며,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해변의 두 갈래 길』을 읽고 있는 이집트인

제한된 이슬람문화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한 권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리고 지금 이집트 선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시적기에 성경을 배포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집트에 성경이 전해져 박해 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한다. 



♥ 후원문의 ♥

금년에 이집트에 약 10,000여 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하려고 합니다.

매월 10만 원이면 20명, 1만 원이면 2명의 이집트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성경을 보내는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3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마음을 담아 말라가시어 성경을 보냅니다!



이번에 기증한 <말라가시어 성경>

2016년 12월 6일, 본 공회 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여전도회전국연합회(예장통합, 박인자 회장) 임원들이 모여 마다가스카르에 말라가시어 성경 12,000부를 기증하는 예식을 가졌다.

“130여 년 전 한국에 복음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성경 한 권을 구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쪽복음을 나누어 받으면 품에 안고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여 보내는 이 성경을 통해 마다가스카르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마다가스카르에 성경을 보내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임원들의 기도와 마음은 기증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성경을 받고 기뻐할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임원들은 컨테이너 앞에 쌓여

져 있는 말라가시어 성경을 펼쳐보았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성경을 접하기 어려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상황을 듣고 2016년 주요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상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성경 보내기 모금 활동을 시행하였다.



마다가스카르로 성경을 보내기 전 기도하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임원들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박인자 회장, 왼쪽에서 첫 번째 이윤희 총무)

처음에는 10,000부를 목표로 모금 활동을 시작했지만 전국 지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2,000부의 말라가시어 성경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14년 쿠바에 이어 2016년에도 마다가스카르에 성경을 보내게 된 것에 감사하며 박인자 회장은 “오늘 보내는 이 성경을 통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소망합니다.”라며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인사를 전했다.



마다가스카르성서공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프로젝트에 참석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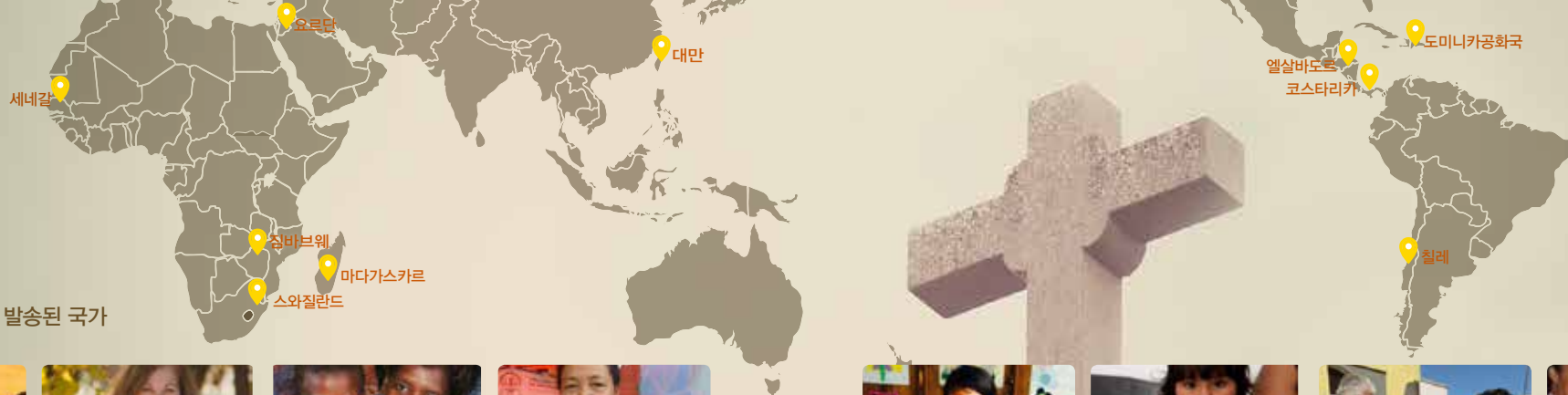
이번에 기증 받는 마다가스카르는...

마다가스카르는 쿠데타를 겪으면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있다. 전체 인구 2,300여만 명 중 절반이 만 16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생 신고조차 되지 못한 아이들까지 합하면 어린이와 학생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생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노동현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기초적인 교육조차 받기 어려워 약 47%의 사람들이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다.

마다가스카르의 기독교 인구는 약 40%에 달한다. 마다가스카르성서공회는 “마다가스카르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성경 한 권을 구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인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매년 평균 약 10만 부의 성서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마다가스카르성서공회가 반포한 성서는 5만여 부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마다가스카르성서공회는 기증 받은 성경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문자교실에 사용하고자 한다. 성경 말씀으로 만든 교재를 통해 글을 익히고,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전도 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69개 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국가
(2017. 03. 02. 기준)



세네갈



요르단



스와질란드



마다가스카르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아프리카 지역 33개국

가나	말리	우간다
가봉	모리셔스	잠비아
감비아	모잠비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니	베냉	짐바브웨
나미비아	부룬디	차드
남수단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니제르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세이셸	콩고공화국
르완다	스와질란드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말라위	에티오피아	토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8개국

남태평양
네팔
대만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중남미 지역 16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와 아루바	칠레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동카리브	페루
멕시코	
볼리비아	
서인도제도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유럽 중동 지역 12개국

러시아
마케도니아
서발칸반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팔레스타인

아프리카의 관문, 에티오피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다!

— 에티오피아 암하라어 성경 기증식



아디스아바바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에티오피아 성도들

지난 2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후원으로 에티오피아성서공회에 암하라어 성경 10,000부를 기증하였다.

에티오피아의 첫 인상

아프리카의 심장부 에티오피아의 도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도색되지 못한 낡은 콘크리트 건

물들과 차선과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은 도로였다. 사람들은 가축을 이끌고 삼삼오오 모여 있거나 어디론가 무리지어 이동하고 있었고, 일행을 태운 차가

잠시 멈추기라도 하면 어디선가 나타난 코흘리개 어린아이를 안은 사람들이 창문을 두드리며 손을 벌려 무언가를 달라고 애원하였다.

한 때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제수준을 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공산화와 독재, 내전 그리고 극심한 가뭄 등으로 이곳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현재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 전락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로 남겨져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고아만 무려 60만 명으로 추정된다.

아프리카 고대 기독교의 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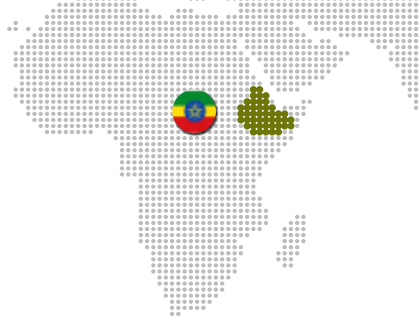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

에 위치해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하게도 이슬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성경의 사건들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성경 속 구스 사람, 시바 여왕, 에티오피아 내시들 모두 에티오피아인들로 추정되며 곳곳에 그 흔적들을 느낄 수 있는 유적들이 많다.

하지만 아프리카 고대 기독교의 시초가 되어 3천 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를 지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서 보급률은 턱없이 낮다. 성경을 구하기 위해 앞서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는 에티오피아성서공회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기증식 장소로 향하였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거리



뜨거웠던 성경 기증식 현장

한국시간으로 2월 8일 진행된 현지 기증식에는 많은 에티오피아 그리스도인들이 참석하였다.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 말씀을 향한 열정 또한 컸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했던 지난날들을 순식간

에 보상받았다는 듯 성경을 받아 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다.

사실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성경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 따르면 한 교회에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3~4명에 불과



기증식에 참석한 에티오피아 사람들



성경을 전달하는 오정현 목사(오른쪽)와 에티오피아성서공회 총무(왼쪽)

Ethiopia

하며 이 역시 목회자들뿐이다. 스스로 바른 신앙을 정립해 가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며, 뿌리 깊은 정교회와 신흥 이단들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공회와 사랑의교회 일행은 이러한 현지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더 많은 성경 보급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에티오피아성서공회에 성경을 전달하며 오정현 목사는 “굶주린 무리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한 목자의 심정,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통함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이 성경

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확장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에티오피아성서공회 일마 게타훈 총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에게 영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에는 성경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성경 보급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였다.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전달한 암하라어 성경이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져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내 생애 첫 성경!

— 우간다 루마사바어 성경 봉헌식



2016년 12월, 한국 교회와 대한성서공회 후원회원들의 후원으로 보낸 루마사바어¹⁾ 첫 번역 성경이 현지에도 도착하여 봉헌식을 가졌다. 성탄절에 만나게 된 생애 첫 번역 성경,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봉헌식 현장을 소개한다.

2016년 12월 23일, 우간다 동부 음발레(Mbale) 지역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렸다. 라디오와 TV 등의 매체를 통해 봉헌식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들은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다양했다. 드디어 루마사바어 첫 번역 성경 봉

을 축하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다. 성경을 받기 위하여 먼 길을 걸어 온 바마사바 부족 사람들은 생애 첫 성경을 손에 들고 춤을 추며 행진하였다.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

1) 루마사바어는 우간다 동쪽 지역에 거주하는 바마사바(바기수)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바마사바 부족의 80%는 기독교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성서한국>> 2016년 겨울, 10-11페이지 참고

다는 사실에 감격해하며 곳곳에서 감사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후가 되자 준비한 성경이 모두 바닥이 났다. 성서공회 직원이 급히 차로 4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수도 캄팔라(Kampala) 지역에 가서 책을 구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서서 기다려야 했지만, 그 누구도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놀랍도록 평온하고 질서있게 성경을 기다렸다. 모국어로 된 성경을 오랫동안 고대해 온 그들에겐 뜨거운 날씨와 피곤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다.

드디어 루마사바어 첫 번역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상기된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바마사바 부족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

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글자 한 글자씩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 번역자 밀턴 시서에 따르면 번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루마사바어 안에서도 많은 방언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루마사바어의 여러 방언으로 번역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루마사바어 개정판 성경의 번역과 제작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수많은 우간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받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는 바마사바 부족 사람들

바위너구리

히브리어 샤판(shafan, 사반) – שָׁפָן

▶ 관련구절

레 11:5; 신 14:7; 시 104:18; 잠 30:26¹⁾

▶ 이름에 대한 논의

코니: 17세기의 영어 ‘코니’(coney)는 그 당시에 흔히 토끼를 부르던 이름이었다. ‘래빗’(rabbit)은 그 당시에 원래 갓 태어난 토끼 새끼에만 붙이던 이름이었는데, 나중에는 다 자란 토끼에도 사용되었다. ‘코니’를 잘 몰랐던 19세기의 성경 독자들은 설교자들의 영향으로 ‘시리아 너구리’를 ‘코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따라서 NIV처럼 ‘샤판’을 ‘코니’라고 번역한 것은 옛 영어일 뿐 아니라 옳은 것도 아니다.

오소리: 오소리와 꿀먹이 오소리, 이렇게 두 종류의 오소리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 꿀먹이 오소리는 작은 포유동물을 포함해서 도마뱀, 벌레, 달팽이, 과일, 꿀과 죽은 동물이나 새 등을 먹는다. 그러나 레위기 11:5와 신명기 14:7에서 말하는 ‘샤판’은 풀만 먹으며, 시편 104:18과 잠언 30:26의 ‘샤판’은 바위와 관련이 있는 곳에서 산다. 그러므로 ‘샤판’을 오소리로 번역한 성경들도 정확한 것 같지 않다.

바위오소리: 히브리어-아람어 사전(BDB)에서는 ‘바위오소리’라고 번역하였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자들은 그 이후 ‘바위오소리’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니’나 ‘바위오소리’는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에게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

라 바른 번역도 아니다. 히브리어 ‘샤판’은 분명 ‘시리아 바위너구리’일 것이다. 이 동물은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에 매우 흔한 동물로, 풀만 먹으며 바위 근처에서 산다.

▶ 모양

바위너구리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된다. 이 동물이 작은 토끼 정도의 크기라는 사실 외에 일반 토끼와의 공통점은 없다. 바위너구리는 특이한 게 많은데, 작고 둥근 귀와 겹으로는 보이지 않는 꼬리와 짧은 다리를 갖고 있다. 이들은 마치 거대한 기니피그 또는 사탕수수쥐 같이 생겼으나 실제로 설치류에 속한 동물은 아니다. 주로 나뭇잎이나 풀을 먹고 산다.

바위너구리는 아주 작은 동물이지만 일곱 달이나 되는 긴 임신 기간을 갖는다. 이들은 대가족 집단을 이루고 사는데, 날씨가 추우면 바위 아래에 있는 굴에서 서로 몸을 밀착시켜서 살아간다. 그러나 땀을 흘려서 체온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씨가 더울 때는 바위나 나무 그늘 같이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서 몸 전체를 늘어뜨리고 누워 있곤 한다. 다시 말해, 바위너구리는 날씨가 온화할 때만 활동한다. 이들은 울음소리를 내는 동물로, 끽끽거리는 여러 가지 소리, 호각 소리 같이 짹짹거리는 경고음, 그리고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 짹는 소리 등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바위너구리

레위기 11:5와 신명기 14:7에서 바위너구리는 되새김질을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계속 씹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들을 부정한 동물로 분류하는 이유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종교적이다. 채식하는 이 동물은 염소나 양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실제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인다.

▶ 특별한 의미 혹은 상징

바위너구리가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것과는 별도로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덧붙일 필요가 있다. 공격에 취약해서 매나 표범이나 사람에게 쉽게 잡히는 바위너구리는, 잠언 30:26에 약하지만 지혜가 있는 동물로 언급되고 있다. 바위너구리는 약하지만 한없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바위를 보호막으로 삼을 만큼 지혜롭다.

▶ 번역

바위너구리는 아프리카 전역(동부와 서부, 중앙과 남부)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 바위너구리의 이름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중동과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 이 동물에 대한 정확하고 대중적인 이름을 찾기는 쉽지 않다. 가장 좋은 선택은 히브리어를 음역한 이름 즉 ‘샤판(개역개정판에서는 ‘사반’) 또는 일반적인 학명인 ‘바위너구리’를 사용하고 부록이나 각주에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것이다.

비록 레위기와 신명기 저자의 동물 지식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번역자는 바위너구리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라는 그 저자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해서 번역해야 할 것이다. 🌐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 by Edward R. Hope (UBS, 2005) 중에서 (번역: 채은하)

1) (역자주) 『개역개정』은 시편 104:18에서는 ‘샤판’을 ‘너구리’로 번역하였고, 다른 세 곳은 모두 ‘사반’으로 음역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전 세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제리에 사는 주어(Djougher, 가명)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주어

몇 년 전, 주어의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홀로 네 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았지만, 주어는 그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였던 남편이 죽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몰려올 때마다 더욱 성경을 읽었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어는 대학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

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무슬림이었던 주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어렵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접해본 적도 없고, 주위에 하나님에 대해 알려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독교인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는 무슬림의 형식적인 기도수칙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모습보다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주어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친구가 건네준 신약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기독교인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주어는 일주일 중 하루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데에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이사야 54장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데,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마음에 많이 와 닿아 지금까지도 되새기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어는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제리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며 겪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알제리의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협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어의 어머니 역시 무슬림이며, 다른 가족들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주어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주어에게 기도를 요청하는가 하면, 주어와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큰 나무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뿌리가 깊게 박혀있고,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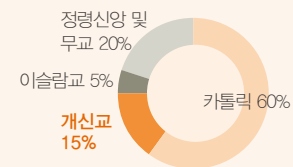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사야 54장 11절, 13절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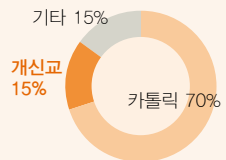
전 세계에 있는 성서공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전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반포하는 해외성서공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룬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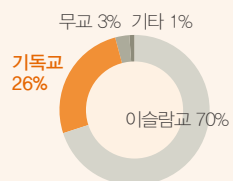
키룬디 해설 성경의 번역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번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난으로 고통 받는 이 나라에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서공회 직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2017년에 반포될 개정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볼리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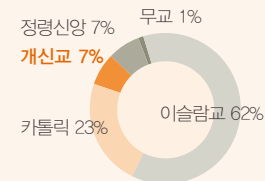
볼리비아성서공회는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해 재활 치유사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역을 계획하는 직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많은 어린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카자흐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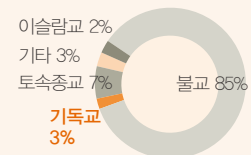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이슬람의 공격적인 포교활동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서공회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카자흐스탄에 복음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부르키나파소



지난 12월, 부르키나파소 북부 지역이 무장 괴한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성경 번역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루 속히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2016년에 있었던 산 성경 봉헌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굴만세마와 다가라 성경의 번역 프로젝트가 예정된 시일 내에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캄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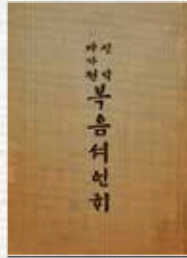
캄보디아성서공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성경 보급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대학살로 인해 불신과 아픔을 안은 채 살아가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 프로젝트를 통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초의 '한글 성서' 외 2권 문화재로 등록되다

2016년 12월 15일, 문화재청은 본 공회가 소장하고 있는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1885), 「구약전서」(1911) 등 총 3권을 문화재로 등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1885)



「구약전서」(1911)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는 1882년 3월 24일 중국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출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서이다. 스코틀랜드연합장로회의 존 로스 선교사와 한국인 이용찬, 백홍준, 서상륜, 이성하 등이 번역에 참여하였으며, 스코틀랜드성서공회와 영국성서공회가 출판을 지원하였다.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출간은 계속해서 한글 성경 번역과 출판에 영향을 끼쳤고, 한글이 널리 퍼져 정착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는 이수정이 일본에서 체류할 때에 미국성서공회의 지원으로 출간한 국한문성서이다. 이 성서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번역한 성서로, 한자로 표기한 말은 그 옆에 한글로 음이나 훈을 달아주어서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성서를 한반도에 들여와 보급하면서 복음전도에 크게 기여하였다.

「구약전서」는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구약전서로, 이로써 신약과 구약을 합한 최초의 「성경전서」가 나오게 되었다. 또한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 철자법'이 완성됨으로써, 사람들이 성경의 철자법을 한글 표기의 표준으로 삼았고, 그 후 성문화된 '언문철자법'의 토대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문장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 신청서

신 청 인	교 회 명		교회직분	
휴대전화	집 전 화			
주 소				
약정금액	☐ 매월 100,000원(성경 20권)	이메일주소	☐ 소식지 이메일 요청	
	☐ 매월 50,000원(성경 10권)	이 체 일	☐ 매월 5일 ☐ 매월 15일 ☐ 매월 25일 (전고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시 2회에 한해 재출금 됩니다.)	
	☐ 매월 20,000원(성경 4권)	은 행 명	계좌번호	
	☐ 매월 10,000원(성경 2권)	예금주명	예금주 휴대전화	
	☐ 매월 5,000원(성경 1권)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상의 생년월일 (법인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매월 원(성경 권)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역에 후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효성에프엠에스(주)의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자동이체를 위해 동의함에 체크해주세요!

신 청 인 : _____ (인 또는 서명)

예 금 주 : _____ (인 또는 서명)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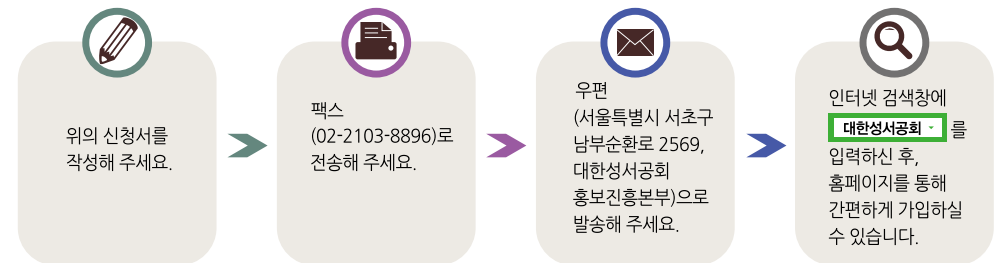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1.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정보만 수집합니다.
2. 자동이체 등록시, 효성에프엠에스(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와 금융기관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예금주[납부자]의 연락처 확인 불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 효성에프엠에스(주), 금융기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fnc.c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성경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말라위의 15살 소녀 레티스 카젠가는
외진 지역에 있어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마을로부터 무려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말라위성서공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의 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전도사가 꿈인 레티스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나눠줍니다.
작은 소녀의 얼굴엔 어느새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후원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은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는 데 쓰여집니다.

레티스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세요!



후원계좌

성경 번역과 보급을 위한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농협은행	355-0025-0990-53
수협은행	033-01-085327	우체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630-008603-501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구, 외환은행)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대한성서공회)